학술논문 검색서비스 earticle

통역과 번역
제21권 2호

ISSN : 1229-6074(Print)

방송 통번역사의 업무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홍설영

To cite this article : 홍설영 (2019) 방송 통번역사의 업무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통역과 번역, 21:2, 195-229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Download by : 163.152.133.25 Accessed :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http://dx.doi.org/10.20305/it201902195230

통역과 번역, *21*(2), 2019

방송 통번역사의 업무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홍 설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Hong, Sulyoung. (2019). A narrative inquiry of a TV interpreter/translator's work adapt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1*(2), 195-230.

TV interpreting and broadcast-related translating is a relatively well-established market for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Korea. Yet not much is known about the specific roles and work dynamics that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field face. With the goal of taking a microscopic view into a TV interpreter/translator's work adaptation process, the current paper uses narrative inquiry as its research method to look into the research participant's 8 years of work experience both as a simultaneous interpreter for live TV broadcast news and as a translator involved in news content production. Qualitativ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of temporality, sociality and space. Findings revealed the various dimensions of work adaptation including the live broadcasting context and relevant variables, interpreting strategies specific to live TV and news broadcasting, dubbing and subtitling translation & news content production, and live simultaneous interpreting of the U.S. State of the Union Address.

Keywords: media/TV interpretation & translation, live broadcast interpreting, TV program production, dubbing translation, narrative inquiry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I. 들어가며

방송은 통역과 번역이 빈번히 수행되는 통번역의 중요한 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TV 시청자들은 뉴스 보도, 중요 국제행사 중계, 지도자의 연설 혹은 회담 성과 발표 등의 상황에서 방송으로 전해지는 통역사의 음성을 통해 방송 통역의 세계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또한 자막 등을 통해 방송 컨텐츠에 대한 번역을 접하는 것 역시 컨텐츠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방송 통번역 시장이 한국보다 앞서 발전을 하였는데, 1968년 미 대통령 선거와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상황 등 1960년대 말의 주요 사건에 대한 생중계 방송 통역이 제공된 것이 이들 국가들의 방송 통역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수나, 2005). 한편 한국의 경우 1991년 초 제1차 걸프전을 계기로 통역사들의 존재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상하였는데, 걸프전 당시 국내의 유명 학원 강사가 동시통역을 담당했다가 낭패를 본 일화는 그 당시 한국에서의 전문 통역사의 부재 및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 이후 2003년의 제2차 걸프전 당시 동시통역사들이 대거 동원되고 능력이 검증을 받은 것에서 한국에서의 전문적인 방송 통역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곽중철, 2003: 3).

한국 방송 통번역의 역사가 아주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세계화의 급속화로 인해 TV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방송 통번역이 진작되어 통번역의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방송 번역의 경우 KBS, MBC, YTN 등의 주요 국내 매체들이 국제뉴스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때 대개 뉴스 번역이 동원되고 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의 출범 및 심야 방송의 허용으로 국제뉴스를 비롯한 TV 뉴스 전반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도 뒷받침 된다(정나영, 2013: 301).

방송 통번역 수요의 진작과 함께 방송 통번역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는데, 연구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전문성 및 이들을 둘러싼 업무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지금까지 한국의 방송 통번역을 주제로 한 국내의 연구는 통역과 번역에 대한 연구 논문의 편수가 각기 10편 미만으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에서 방송 통번역의 전략과 교육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일부 다루고 있지만, 방송 통번역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일상에 관하여는 방송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물을 통한 막연한 유추만 가능할 뿐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처한 업무의 환경과 업무의 내용 및 구체적인 통번역의 수행 전략은 무엇이고, 이들이 어떠한 적응의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신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방송 통번역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몸담은 통번역사의 업무 적응이라는 연구의 필요성에 토대해 질적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해 방송 통번역사의 경험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 방법의 한 갈래인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소상한 묘사를 하는 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개개인만의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다년 간 방송계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연구 참여자 고유의 경험에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방송 통번역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전문 방송 통번역사는 어떠한 업무 적응의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신장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방송 통번역

학술 문헌에서 방송 통번역은 미디어(media), 멀티미디어(multi-media), 영상(audiovisual), 스크린(screen) 통번역 등의 여러 용어로 표현이 된다. 관련 정의를 살펴보면 방송 혹은 미디어 통역은 “엔터테인먼트의 논리로 특정 구분이 없

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담화”(스트라니에로-세르지오(Straniero-Sergio), 2003: 167)이며, 방송 또는 스크린 번역은 “화면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다층기호론적(polysemiotic) 텍스트의 번역”(고티렙(Gottlieb), 2005: 45; 조(Cho), 2014: 379 재인용)이다.

지금까지 방송 통번역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방송 통역의 경우 생방송 기자회견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송연석, 2019), 구어 및 수어 릴레이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한현희, 2016), 비전문가의 생방송 동시통역(이태형, 2014), 방송사 통번역 시스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김은영, 2013·2014), 수용자 평가(김보애, 2013), 충실성과 이해용이성(김한식, 2012), 뉴스 시차통역(조영주, 2008), 방송통역사 훈련법(곽중철, 2008·2003), 방송통역의 개요와 특징(최수나, 2005)의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방송 번역의 경우 영상 및 언어 기호의 맥락에서의 TV 뉴스 번역 전략 (정나영, 2017), 영상 번역의 역사와 관련 이론(조, 2014), 뉴스 번역 양상(강수정, 2013), 번역 화계 분석(김한식, 2013), 편역의 맥락에서의 TV 뉴스 번역의 삭제 전략(정나영, 2013), 라디오 텍스트 번역 양상(최경인, 2013), 격식성 및 정중성을 중심으로 한 TV 방송 뉴스 번역 전략(이지연, 2007), 방송뉴스 번역의 정보구조 변화(이창수, 2004)를 주제로한 문헌들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보듯 통역의 경우 동시통역에, 번역은 전략과 결과물 분석에, 통번역 공통적으로는 뉴스에 연구가 다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 통역은 돌발 뉴스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동시통역을 하는 경우와 같은 생 동시통역, 방송 내용을 몇 번 들은 후 통역을 하는 세미 동시통역, 원고 혹은 녹화된 영상을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시차 통역으로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조영주, 2008: 145).

방송의 특성으로 인해 여타 유형의 통역에 비해 방송 통역은 통역사에게 많은 변수와 부담을 가한다. 우선 방송 통역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통역사의 음성이 방송을 통해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방송의 ‘주된 참여자’로 규정될 수 있는 방송 통역사는 일반 회의통역사에 비해 자신의 전문성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카탄과 스트라니에로-세르지오(Katan & Straniero-Sergio), 2001: 217). 또한 해외에서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 시차를 극복하고 긴급기자회견 등의 상황에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서 즉시 출동하여 통역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야 하는 것이 방송 통역사의 역할이다(쿠르츠(Kurz), 1990). 뿐만 아니라 위성 등의 송출된 신호로 원문의 입력을 받아 방송 통역을 수행하므로 물리적으로 통역사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어 여러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생방송일 경우 시청자들의 직접적인 평가에도 노출이 된다(이태형, 2000: 89-94).

한편 일반 회의통역과 대비해 방송 통역의 특성들을 뉴스 통역의 맥락에서 상술한 조영주(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에 비해 몹시 빠른 아나운서의 발화 속도, 부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 더 깊고 폭넓은 시사 지식에 대한 요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과 용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대한 요구 등이 방송에서 많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발화속도가 빠른 입력 언어에 대해 방송 통역사는 깊은 주제지식을 갖춰 언어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출력 언어로 통역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방송 통역 수행의 어려움을 언어의 입력과 출력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언어 입력 즉 원천 언어의 난도와 중요도의 차원에서 방송 통역을 수행하는 일은 통역사에게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방송이 될 정도의 원천 텍스트는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며, 사전에 작성된 연설일 경우 작성자가 내용과 어휘선택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푀히하커(Pöchhacker), 2011: 23).

언어 출력의 차원에서도 방송 통역사는 못지않은 부담을 안게 되는데, 선행연구들은 방송 통역에서 통역사의 퍼포먼스와 통역의 완성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보애, 2013; 김한식, 2012; 곽중철, 2003). 이때 통역의 완성도란 충실한 의미의 전달보다는 언어 표현적인 부분과 전달력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회의통역과는 달리 방송 통역은 형식적인 면이 중시되는 형태의 통역이기 때문이다(김보애, 2013: 241). 보다 구체적으로 방송이라는 특성 상, 목소리의 크기나 발음의 명확성, 발화속도 등 유창성과 가해성(可解性)의 측면들이 중시된다(김한식, 2012:16). 또한 스트라스부르 포럼의 미디어 통역 워크샵(Media Interpreting Workshop of the Strasbourg Forum)의 내용을 요약한 곽중철(2003: 19)에서는 유창성의 측면 외에도 방송 통역사에게는 단순 언어적·문화적 매개자 역할을 넘어선, 시청자 혹은 청취자를 위해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연기자'의 역량이 요구됨을 밝혔다. 실제로 방송 통역의 사용자인 방송 관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계자들은 통역 품질 평가의 여타 요소들보다도 목소리, 발음, 유창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쿠르츠, 1996).

다음으로 방송 번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청각매체 텍스트 번역의 맥락에서 세계 번역학계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로는 자막번역, 더빙, 편역(trans-editing)을 들 수 있다(최경인, 2013: 221). 자막번역, 더빙, 편역은 방송 뉴스 번역에서도 빈번히 수행되는 번역의 유형들인데, 뉴스 번역은 방송 번역과 관련해 국내 선행연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뉴스 번역의 특성, 번역 양상 및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뉴스 번역은 본고와 가장 관련성이 큰 번역의 유형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제도적 번역에 해당하는 뉴스 번역에서는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이 중시될 확률이 아주 높으며(정나영, 2017: 200), 방송 통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청자 혹은 방송의 사용자들에게 송출되는 목적의 뉴스 번역물에서는 보도의 여러 규범 가운데 내용과 정확성과 완성도 있는 표현력이 중시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번역의 표현의 측면에서 뉴스가 중시하는 요소로 언어적 경제성, 가해성, 자연스러움 및 격식성을 들 수 있다(이지연, 2007: 268).

방송 뉴스 번역사가 어떤 형태의 번역을 하는가에 따라 번역의 방식과 전략의 제반 측면들이 영향을 받는다. 방송 뉴스에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번역의 유형은 자막 번역과 더빙 번역이다. 김한식(2013)은 보도된 프로그램에 대해 원음을 보존한 채 발화 내용에 대해 번역을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을 '직접 발화'라 일컬으며 한국어, 일본어 방송뉴스 자막 번역의 화계(speech level)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일 자막번역에서 한국어 원문의 화계가 꼭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면서, 화계에 관하여는 고정된 번역의 관습이 없으므로 자막 번역사가 뉴스를 둘러싼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화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

한편 더빙용 번역을 하는 뉴스 번역사의 업무는 단순 자막의 번역사보다 복잡하고 확장된 형태를 띤다. 외신 모니터링, 번역할 아이템 선정, 활자로 번역, 번역된 텍스트 더빙 작업이라는 TV 뉴스 번역사의 업무 흐름에서 볼 수 있듯(정나영, 2017: 303), 이 경우 방송 번역사의 역할은 주어진 방송 원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고를 단순히 번역하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역할 컨텐츠를 선정하고 번역문을 자신의 음성으로 입히는 일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방송 통역과 번역 모두에서 통번역사에게 중요한 전략이자 불가피한 요소는 원문 정보에 대한 재조정이다. 충실성과 이해용이성의 측면에서 방송동시통역을 고찰한 김한식(2012)은 방송 통역사가 이해용이성을 확보하려면 정보의 축소는 불가피하므로 정보의 우선순위를 매겨 순위가 낮은 내용은 생략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하며 문장을 합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여 정확성과 이해용이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방송 번역에서도 편역, 조정, 삭제 등의 정보변화는 보편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뉴스의 정보구조 변화를 머리말 문장(혹은 리드)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창수(2004)는 한국어 원문의 수식절이 생략되고 정보들의 배치 위치가 영문 번역에서 달라지는 등, 번역자가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영어 뉴스 집필의 원칙을 유념하여 영문 번역본을 재구성한다는 점을 밝혔다.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의 라디오 방송 텍스트 번역 양상을 분석한 최경인(2013)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도 목표 언어의 텍스트 작성의 규칙들이 번역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힘과 더불어, 정보의 삭제와 추가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변화가 번역의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드러냈다.

이상을 종합하면 방송 통번역은 일반적인 통번역보다 특수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통번역의 전문 영역이라 하겠다.

2. 내러티브 탐구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대별된다. 수치를 통한 객관적인 증명과 결과의 일반화를 꾀하는 양적 연구에 반하여 대두된 질적 연구는 “특정 맥락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일환으로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의된다(패튼(Patton), 1985: 1).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자 연구의 실제적인 목적이 된다. 개인이 형성하는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크레스웰(Creswell. 2012)은 질적 연구의 8가지 주요 특징으로 ‘자연적 상황, 연구의 핵심 도구가 되는 연구자, 다양한 연구방법, 귀납 및 연역을 통한 복합적 추론, 참여자의 의미, 유연한 연구설계, 자기반향성, 총체적 설명’을 들었다. 이들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듯,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주된 연구의 도구가 되어 참여자의 의미를 형성한 맥락과 상황의 상호작용들을 여러 추론을 활용해 분석하여 총체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특정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을 통합하여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는 현상학(phenomenology), 자료에 근거하여 과정과 행동, 현상에 대한 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특정 환경 내에 위치한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적 의미의 파악을 위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삼는 사례연구(case study), 그리고 본고가 택한 연구방법이자 개인(들)의 소상한 경험에 대한 기술과 해석 및 재해석을 제시하는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가 있다.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로서의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이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삶 전반에 대한 가치매김과 의미부여를 한다. 이렇듯 인간은 태곳적부터 이야기하는 삶을 영위해 왔다. 그런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내러티브가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 활용된 것은 비교적 근래인 20세기에 들어서이다(클래디닌과 로지엑(Clandinin & Rosiek), 2007: 35). 내러티브가 학문적으로 태동하도록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는 지식의 객관성, 독단성, 고정성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 경험과 지식과 자아임을 강조한다.

내러티브 분석에서는 이야기 자체를 지식으로 간주하며 이야기는 “화자의 사회적 현실”의 구성체가 된다(에더링턴(Etherington, 2004: 81). 이런 의미에서 연구의 도구이자 대상으로서의 내러티브란 단순한 이야기나 일화의 나열이 아닌, “일관성이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과거의 사건들, 인물들, 행위들, 상황들을 서로 관련짓고,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면서 질서와 형상을 부여하는 사고양상”이다(박민정, 2006: 37).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라는 상위개념 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 가운데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코넬리와 클래디닌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Connelly & Clandinin, 1990)이 듀이(Dewy)의 인식론에 근간하여 교사 연구의 일환으로 처음 소개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적, 사회적 관계 내에서 여러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경험을 하는 존재이다. 이에 따라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추상적 이론이나 형식적인 개념으로 축소하는 것을 경계하며, 관계성에 기초하여 경험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인간의 성장의 과정에 집중하고,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한다(김필성 2015: 110-111).

상기한 경험, 상호작용, 관계성과 사회적 차원의 교차점을 탐색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는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장소(place)라는 3차원 탐구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의 개념을 제시한다. 시간성이란 시간의 진행에 따른 인간의 경험을 고찰하는 것이며, 사회성은 연구 참여자와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일컫는다. 한편 장소란 “사건과 탐구가 발생하는 구체적, 물리적, 위상(topological)의 경계로서의 장소”를 뜻한다(코넬리와 클래디닌, 2006: 80-81).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며 이야기를 살아내기(living), 자신과 타자와 환경과 맥락 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telling), 탐구적인 관점에서 경험을 숙고하며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3차원의 탐구 공간을 토대로 경험을 성찰한 후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다시 살아내기(re-living)라는 내러티브 탐구의 순환적 구조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내러티브 탐구 논문에서 탐구자는 이야기하기를 통해 생성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며 첫 단계로 해당 내러티브를 정독하여 범주화 및 재구성한 ‘이야기하기’를 우선 제시한 후,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자의 해석을 제시하는 ‘다시 이야기하기’의 2단 구성으로 집필을 하게 된다.

한 개인의 경험을 소상히 제시하는 것이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이므로 내러티브 탐구 논문의 글쓰기는 학문적인 동시에 감성적이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물론, 판단이나 불신을 배제하고 연구 대상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청취를 하는 것이 내러티브 탐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이다(클래디닌과 머피(Clandinin & Murphy), 2007: 647).

III. 연구의 실제

1. 연구 참여자

방송 통번역사의 업무적응이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다년 간 해당 분야에 몸담으며 관련 통역과 번역 업무를 접한 한-영 여성 방송 통번역사 김민선(가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방송 통번역계에 종사한 연한이 10년 이상이므로 방송이라는 특수 업무 환경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통번역 업무의 내용과 적응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리라 사료되었다.

2. 연구 절차 및 데이터 분석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 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사전 만남을 갖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후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등의 연구 윤리와 상호 간의 책임성을 약속하는 연구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방송 통번역사의 업무적응이라는 연구 주제를 논의한 끝에 참여자의 다년간의 방송 통번역 경력 가운데 통번역대학원 졸업 직후에 연달아 발생한 두 개 경력인 생방송 외신뉴스 동시통역 프로젝트와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인하우스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내러티브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가 방송의 다양한 통번역 업무에 새로이 노출되어 적응의 노력을 가장 크게 요한 기간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네 차례, 총 8시간 동안 실시하였고, 인터뷰 전체 분량은 녹음 및 전사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번역결과물 등의 업무자료를 더불어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전사지를 재차 정독하며 귀납적인 의미의 범주화를 하는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표 1>과 같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표1> 연구 절차

날짜	연구 활동	내용	수집 자료
2019. 1-2월	연구 준비	연구 계획 수립 연구 참여자 섭외 사전회의	연구 동의서 연구 계획 노트
2019. 3. 1	내러티브 이야기하기	인터뷰/현장텍스트 1	인터뷰 음성파일 전사지
2019. 3. 4		인터뷰/현장텍스트 2	인터뷰 음성파일 전사지
2019. 3. 6		인터뷰/현장텍스트 3	인터뷰 음성파일 전사지
2019. 3-4월	내러티브 다시 이야기하기	질적 데이터 분석/코딩 연구 텍스트 작성	코딩 자료 연구 텍스트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전사지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업무 내용과 적응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코딩을 실시한 결과, 생방송 외신뉴스 동시통역 프로젝트에서는 4개의 핵심주제와 18개의 구성의미가, 24시간 뉴스 방송 채널의 인하우스 업무와 관련하여는 4개의 핵심주제와 17개의 구성의미가 도출되었다. 코딩에 따른 범주화의 구체적인 분류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데이터 코딩 분류 결과

업무 대분류	핵심주제	구성의미
생방송 외신뉴스 동시통역 프로젝트	업무 컨텐츠	메인뉴스 vs.단신 기자 리포트, 단신 vs. 속보 동시통역 원천언어의 정제 정도, 정보 구조화 측면에서의 편차 높은 정보밀도와 토픽의 방대함 뉴스의 포맷과 용어 익히기
	통역 전략	철저한 사전준비와 암기 3초는 방송사고 : 시간끌기/침묵 메우기 전략 어순처리와 예측전략 자막, 그래픽 등 시각 정보의 적극 활용 커버리지와 딜리버리 간의 줄다리기 통역사보다는 방송인처럼: 사전교육의 공백 메우기

	생방송 상황과 특성	음소거 버튼의 부재 휴지와 삽입어 금기시 딜리버리, 유창성, 목소리의 중요성
	속보	한국 관련 뉴스 생중계 속보의 특성: 반복, 정보밀도 낮음, 말의 완성도 낮음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인하우스 업무	뉴스 프로그램 제작	컨텐츠 모니터링 및 선정 들으면서 번역하기 보이스오버 편집기술 업무 범위 확장 외신 뉴스 제작: 일상의 고정적 업무 선정기준: 시의성 없음, 한국 시청자들의 흥미, 길이 데스크를 봐주는 이 없이 홀로 헤쳐가기
	동시통역 공통	1인 동시통역
	속보 생방송 동시통역	예기치 못한 시간과 상황에 발생 교대근무 실무자들과의 협업 이니어(in-ear)를 둘러싼 오해
	국정연설 동시통역	방송 5분 전 원고 전달받는 애로 상황중계까지가 통역사의 몫 고유명사에 대한 부담 생소한 내용, 고유명사에 대한 통역의 우회전략

이상의 범주들을 연구자는 주제별로 새롭게 묶어 연역과 귀납의 추론 과정을 겪어 연구 대상자 민선의 이야기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었다. 이를 토대로 체계화 및 재구성된 ‘이야기하기’를 제시한 후 내러티브의 의미에 대한 2차 해석에 해당하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집필하였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Ⅵ. 민선의 내러티브 '이야기하기'

민선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구직을 하던 중, CNN 뉴스 동시통역 프로젝트의 통역사 구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타임워너사의 몇 개 채널과 콘텐츠를 한국의 위성 케이블 방송사에 배급하는 한국 프로그램 공급사의 프로젝트로, 이 회사는 CNN의 생방송 뉴스에 대한 한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방송의 일환으로 기획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해당 배급사는 전문 통역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민선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2000년대 초반은 외신 뉴스에 대한 정기적인 방송 동시통역 서비스가 전무하던 시점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앞서 뉴스에 대한 방송 동시통역이 그 당시에도 기 정착되어 이루어지고 있던 데에 반해, 한국에서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대이라크 침공을 하자 일부 국내 방송사들이 속보의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뉴스를 동시통역으로 내보낸 정도의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사례만이 있었을 뿐이다. 민선이 합류한 회사는 CNN 뉴스 동시통역을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음성다중 서비스로 제공하는 최초의 시도를 한 것이다.

동시통역이란 대개 국제회의 상황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민선은 생방송 뉴스 동시통역이라는 국내 미개척 영역에 몸담은 한국의 1세대 통역사로서 대학원 졸업 후의 첫 경력을 쌓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배급사의 뉴스 동시통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민선은 추후 CNN 컨텐츠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국내 유수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의 통번역과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게 되어 다년간 방송 통번역이라는 특수 영역에 몸을 담고 일하게 된다.

1. 미개척지에 내딛은 첫 발

민선이 입사하기에 앞서, CNN 뉴스 컨텐츠 한국 배급사의 프로젝트에는 두 개 통역팀에 총 4명의 통역사들이 업무를 한 달여 간 시작한 시점이었다. 첫 통역팀원들 가운데는 소위 해외파 통역사들이 다수 있었는데,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능력이 중시되는 방송의 언어적 필요에 따라 한국어가 강한 국내파 통역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팀의 일원들 가

운데 공석이 생겨 민선은 국내파 통역사라는 장점을 안고 전문 동시통역 인력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다.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개시되는 음성다중 생방송 외신 뉴스 동시통역 서비스인 만큼, 민선을 비롯한 이 1세대 통역사들에게는 사전교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송국 보도국에 근무하여 뉴스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은 통역사 출신의 교육자가 이들 통역사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였다. 해당 교육자는 서면으로 뉴스 통역의 주의사항을 적어서 전달하고, 통역사들에게 통역 연습을 시킨 후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방송에서 허용되는 언어의 범주와 통역사들의 어투와 목소리, 그리고 배경지식 쌓기를 통한 준비였다.

>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쓰지 말 단어는 뭔지에 대해서 지도를 받았어요. 통역 연습을 할 때 훈련을 담당하신 분이 저희들 통역을 지켜봤어요. 저한테는 말투, 목소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저음이고 갈라지는 경향이 있고 약간 우울하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피치를 올리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목소리의 두께는 괜찮은데 탁성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더 밝게, 가볍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 여고생 같은 말투 쓰지 말라고 팀원들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해요'체가 아닌 '～습니다'체를 쓰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특히 인사말에서 유의하라고 하셨어요."

> "브리핑 형식으로 종이에 적어서 주의사항 정도를 몇 번 알려주셨고요. 메인 뉴스의 컨텐츠는 고정돼 있고 절반 정도는 내용이 반복이 되는 편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동시 통역을 하라고 들여보내지 않고, 12시 뉴스를 한 번 들어보게 하고 이때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시 뉴스가 나오면 그때 연습으로 통역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워낙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내용 자체가 빡빡하니까요. 연설문이라면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배경지식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통역 기술보다는 원활한 방송을 위해 필요한 팁들을 많이 배웠어요."

통역팀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업무는 CNN International Asia Edition 컨텐츠 가운데 1시간마다 이루어지는 30분 길이의 생방송 '월드 뉴스(World News)' 프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로그램을 한국어로 동시통역 하는 일이었다. 통역팀 별로 통역을 하루씩 맡아, 근무는 격일로 진행되었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1부, 중간광고, 2부, 일기예보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일기예보도 통역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뉴스의 정형화된 구성은 숙지하기에 힘든 부분이 아니었지만, 실전 통역이 시작되자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제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에 민선은 적잖이 당황하였다.

> "말이 안 나오는 거요. 대학원에서 통역할 때는 뭐라도 동시할 때 뱉었을텐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안 됐어요. 내용을 모르니까요, 시사에 밝지 않고 배경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이 뉴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게 안 되니까요. 국제뉴스이다 보니까 한 나라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밝지 못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 "뉴스는 허투루 들어간 단어가 없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듣고 기다렸다가 통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초반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문과 통역 간의 시차가 길어지고요"

> "미국 쪽 뉴스는 정치쪽이 많았고 내용이 깊이 들어갔어요. 공화당, 민주당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에 관한 스캔들이라든가 법원, 재판 같은 내용도 자주 나왔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9.11 테러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북아일랜드, IRA, 이스라엘 선거, 이런 게 당시 이슈였어요."

민선이 일상적으로 통역한 뉴스 보도기사의 유형은 속보, 단신에 해당하는 기자 리포트와 전문가 심층 대담이었다. 속보는 사건사고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보도가 많아서 내용의 예측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속보 통역을 거듭할수록 민선은 속보의 특성 상 통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속보에서는 갓 벌어진 상황에서 기자가 투입되어 보도 내용이 중복되고 기자가 쓰는 언어의 완성도가 아주 높지 않아, 통역사에게는 역으로 의미를 추리고 말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속보를 비롯하여 화면의 그래픽과 자막 등이 많이 등장하는 성격의 뉴스에서는 이 같은 시각정보들이 의미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게 해주는 단서가 되었

다. 이에 반해 사전에 준비된 기자리포트는 정보량이 많고 낭독의 속도가 아주 빨라 민선에게 심적 부담을 크게 안겨줬다. 전문가 대담 역시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게 되어 큰 부담이었다.

> “일반 뉴스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 못 따라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기자들이 엄청 구조적으로 기사 내용을 빡빡하게 만들거든요. 일반 보도기사와 속보 기사의 정보 밀도는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낭독 속도도 빠르죠, 실수나 백트래킹도 없고 언어가 정제돼 있고요. 그런데 속보는 통역이 더 쉬운 게, 리포팅 속도 자체가 빠르지가 않아요. 갓 벌어진 상황에서 기자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기자들도 말에 필러가 많이 들어가고 횡설수설도 하고, 즉석에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트래킹도 많이 하고요. 통역이 더 쉬운 게, 백트래킹까지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요 내용만 추려서 통역하면 돼서 백트래킹은 오히려 통역사에게 여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계속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놓쳤더라도 나중에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 “속보 통역 같은 경우는 화면 상에서 주요 내용을 자막으로 계속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역하면서 자막이 참고가 돼요. 수치를 읊고 결과를 말해주는 그런 속보는 아주 어렵지 않죠. 선거도 개표방송 같은 게 더 쉬워요, 왜냐면 그래픽이 많이 나와서 듣지 못해도 화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암초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 개표 방송도 그렇지만 숫자만을 얘기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오히려 힘들죠. 왜냐면 정치 지형, 정당들 간의 역학 관계, 각 후보의 이력과 성향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민선이 뉴스의 내용과 속도에 대한 부담을 극복할 길은 철저한 준비 뿐이었다. 뉴스 내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내용 숙지, 번역을 통한 임시원고 작성 등의 적극적인 학습으로 민선은 통역에 대비하였다. 또한 뉴스에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을 사전에 완벽히 암기해두고자 노력했는데, 이는 영어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청취하여 한국어로 통역하는 상황에서 어순처리를 원활히 하고 동시통역에서 중시되는 예측능력을 발휘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제 방글라데시가 화재가 났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영어 어순에서는 사건인 화재부터 말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장소에 해당하는 나라와 도시이름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나라의 정상들, 주요 인물들을 꿰고 있어야 돼요. 나라별로 정상회담이라든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뭐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총리하고 영어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이름이 먼저 나가야 돼서 내가 그 이름을 미리 알고 뱉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 어순 상이요.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뉴스의 한국어가 정갈하고요."

"당시에는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 내용이 다르고 통역도 그에 따라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통역이 12시부터 있으면 아침 8-9시에 출근해서 오전에 나온 뉴스를 모니터를 하고 중요하게 다뤄질 톱뉴스는 핵심 단어와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번역도 해놓고요, 일종의 임시원고처럼. 단신은 길이가 30초 정도라서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밀어 넣고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내용어라서 단어 몇 개를 놓치면 내용을 아예 놓치기가 쉬워요. 또 보도내용이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정치상황에 대한 내용 등일 때는 불안하게 가고 말이 엉키기가 쉬운데 어떻게 해서든 통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신문도 계속 보면서 한국어 단어 계속 공부하고요."

동시통역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된 외신 뉴스 생방송 통역은 민선에게 넘어야할 커다란 산으로 인식되었다. 업무가 있는 매 순간은 당혹감과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뉴스의 형식부터 방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면모들이 민선에게는 낯설고 고로 철저한 학습으로만 위기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2. 생방송 뉴스의 지뢰밭 걷기

동시통역 업무가 계속되면서 민선은 점차 (생)방송과 뉴스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통역사로서 힘겨운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학원 교육에서는 통역이란 내용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다 잡는 것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기준에 따라 통역을 하면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시청자가 듣기 좋은 발화속도로 통역하는 역량이 더욱 중시되는 상황에서, 통역을 하는 순간마다 민선의 머릿속에서는 커버리지와 유창성 간의 줄다리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결국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줄거리를 순간적으로 잘 파악하고 통역할 핵심내용만을 추려서 말하는 분별력이 중요했다.

> “초반에는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최대한 내용을 많이 잡으면서 한국어로 잘 전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피드백도 받고 계속 하다 보니 통역사보다는 방송인처럼 해야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물론 제 통역을 듣고 기사를 쓴다거나 나중에 방송에 활용해야 되는 기자들에게는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방송이라는 거는 일반 시청자가 중심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으로 말이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 “보통 동시통역이 ‘1 3 5 7 9’로 간다면 방송통역은, 특히 준비된 보도의 경우, 통역이 한 문장 단위로 봤을 때 ‘1 5 10’이 많았어요. 시간 여건 상, 그리고 제 역량 상, 주어/동사/목적어, 누가/어디서/뭘했다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원문에서는 사이사이에 부가어와 부사 등도 다 붙었을텐데 통역에서는 기본 맥락과 핵심 정보 위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커버리지가 100이라면 50만 잡았더라도 80 잡고 불안하느니 전자가 안정적인 전달이 방송에서는 나은 거예요. 물론 50이라도 내용과 큰 흐름을 잘 잡았다는 전제에서지만요.”

> “커버리지를 높이려고 하면 단어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말이 빨라지고 단어가 어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져요. 주어진 정보를 바로바로 말해야 되다 보니까 정리하고 재구성할 여유가 없어서요. 통역사는 보통은 내용의 정확한 전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런데 방송은 일단은 들어서 편한 게 더 중시돼요.”

단순히 적정 속도뿐 아니라 어투와 발음 등 전달력의 모든 측면에서 최대한 방송인처럼 전달하여 매끄럽고 안정적이어서 통역의 티가 나지 않는, 시청자가 듣기에 일반 앵커나 기자의 말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통역 언어가 요구되었다.

> “방송에서는 내용보다는 분위기, 톤, 안정된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방송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에 나오는 앵커나 기자의 어투와 속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어떤 목소리, 단어, 속도로 전달이 된다는 익숙함이 있는 거죠. 시청자들은 통역이라서 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해나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를 않죠. 내용을 엉망으로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듣기 좋게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것이 방송에서는 저한테 가장 바라는 부분이라고 느껴요. 내 말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거요.”

> “제가 다른 통역사랑 내용이 많은 방송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방송에서 나온 영어가 연설문 형식이기는 했는데, 제가 통역사로 봤을 때는 그 파트너가 ‘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어도 잘 쓰고 내용도 잘 잡았고요. 파트너는 내용을 바짝 쫓아가느라고 말은 엄청 빨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유 있게 쫓아가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방송국 쪽에서 피드백이 왔는데 그 친구 통역을 불안해서 못 듣겠더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린다는 거죠. 또는 목소리를 떠는 경우, 긴장감과 불안감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경우에도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방송국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시청자들은 사실은 내용 자체를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선이 지뢰밭처럼 피해가려 안간힘을 것은 다름 아닌 ‘침묵’의 발생이었다. 침묵은 곧 방송사고이기에, 방송인과 같은 순발력이 발휘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영어를 듣고 통역을 하는 맥락에서의 침묵이어서 일반적인 방송에서 요구되는 침묵 메우기보다는 훨씬 다양하고도 고도화된 전략이 구사되어야만 했다. 화면정보를 통해 신속히 내용을 추리고 예측하여 언어화하고, 침묵이 발생할 것 같은 순간에는 배경지식을 끄집어내 해당 뉴스와 관련된 말을 뭐라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야 했다. 배경지식을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에서 중립적이고 사실정보에 기반한 멘트를 영어 뉴스 기사와는 별도로 삽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통역 능력을 뛰어넘는 ‘스마트한’ 애드립 능력과 멘트 능력이 상당 부분 발휘되어야 했던 것이다.

“사실 방송에서 제일 심각한 사고가 침묵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3초라도 소리가 안 나면 실제 방송에서는 사고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중에도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통역을 할 때 실제 뉴스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침묵이라는 방송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제 머리에도 쌓인 지식을 활용해서 해당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애드립처럼 메꿔 넣는 거죠. 그 전 시간에 이미 들은 사건이면 알고 있으니까 아예 미리 치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혹은 화면 하단의 헤드라인 자막의 정보를 보고 빨리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실제로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침묵이 길어지거나 방송 사고가 나지 않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는 내용을 말하거나, 화면을 보면서 자막 형태의 헤드라인과 부가정보들이 뜨는데 이 뉴스와 직결되는 내용인 그걸 보면서 말을 만들라고요.”

“그리고 어, 저, 그 같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삽입어도 발설해서는 안 돼요. 침묵을 메우려고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넣는 게 이런 식의 삽입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 말로만 침묵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침묵만큼이나 생방송 상황에서 금기시된 것은 잡음의 발생이었다. 이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동시통역을 해야 하는 환경이라 일반 동시통역 부스에 설치된 통역 음소거 버튼이 부재한 데 기인하였다. 극도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앞에 둔 자료를 보면서 통역을 해야 하는 민선에게는 감도가 높은 방송용 마이크를 앞에 두고 손과 목에 족쇄가 채워진 느낌이었다.

“침묵 외에도 잡음도 내면 안돼요. 기침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등이요. 일반적인 회의용 동시통역 부스에는 원할 때 소리가 안 나가게 하는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 방송 상황에서는 그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도 한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번은 기침을 못 참아서 제 기침 소리가 결국 방송에 나갔어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기침이 나올 거라는 싸인을 그분들께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통역 파트너한테 손짓을 하면서 대신 잠깐 통역해달라고 할 여유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침소리가 나가 버렸죠. 이게 엄청난 사고라는 걸 알고 있어서 끝나고 난처한 표정을 짓고 넘어가긴 했는데, 방송국 분들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앵커 데스크가 있는 그런 공간을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통역사들도 스튜디오의 데스크에 앉아요. 그리고 방송용 마이크는 부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감도가 훨씬 높아요. 음소거 버튼이 없는 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앵커나 출연자들이 말을 할 때 사실 돌발 상황이 많지 않고 준비된 원고가 프롬터에 띄워져 있고, 진행 형식이 다 사전에 짜여져 있단 말이예요. 앵커들 입장은 그런데, 통역사들은 얼굴이 아닌 목소리만 나가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내 마이크를 전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애초에 통역사들을 위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일반 방송용으로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통역사를 고려해서 스튜디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듯 민선은 사전교육에서 받은 지침과 원칙을 벗어난 방송의 여러 변수들과 날마다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는 하루아침에 물에 던져져 스스로 영법을 터득해야 하는 상황과 흡사했다. 방송 화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은 받은 적이 없는 민선에게 의미의 핵심 줄거리만을 추려 방송에 적합한, 완성도 있고 유창하며 적정한 속도로 방송인이 말하듯 통역을 수행하는 일은 상당한 스킬을 요하였다. 또한 침묵과 잡음이 금지된 상황에서 민선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아주 신중하게 입을 떼야 했다.

3. 프로덕션의 신세계

2년 여 간의 CNN 뉴스 동시통역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선은 공채로 국내의 24시간 뉴스 방송국에 인하우스 통번역사직에 지원을 하여 전문 계약직 통번역사로 입사를 했다. 민선은 해당 방송국 보도국의 국제부 동시통역실에 배치되었는데, CNN 방송 컨텐츠를 원천 자료로 삼는다는 점은 첫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프로젝트와 공통적이었으나 이곳에서 민선이 맡은 가장 주된 업무는 CNN 뉴스를 번역하여 더빙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었다. 날마다 이어진 고정 작업은 5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민선의 업무는 주어진 자료를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CNN 뉴스를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기사를 직접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기존 통번역팀에 합류했던 민선은 전임 통번역사들로부터 뉴스 기사 선정의 기준에 대한 업무지침을 받았다.

> “일단 시의성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송이 오늘 제작을 하면 오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나가거든요. 혹은 오전에 제작을 하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재방송을 합쳐서 대개는 총 3방을 했어요. 그리고 채널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중간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 시간이 어중간하게 뜨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5분짜리 프로가 시간 메우기 용으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3방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아예 방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밖에 쓰일 수 없는 기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령 오늘 어느 나라의 선거상황에 대한 예측성 기사라면 이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또 다른 선정 기준은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사요, 건강 관련 정보라든가.”

시의성이 없고 좋은 내용의 뉴스 기사를 선정하는 와중에, 민선은 5분이라는 프로그램 길이에 대한 고려를 신중히 해야 했다. 많은 경우 방송기사는 길이가 5분 미만이어서 앵커 멘트, 기자 리포트, 단신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적절한 길이의 조합을 창출해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사들을 자르고 붙이는 실제적인 편집 작업을 방송용 편집기계를 사용하여 민선이 직접 수행해야 했다.

> “5분짜리 뉴스를 보면 <앵커 멘트>와 <기자리포트>가 있는데, 5분을 만들려면 5분짜리 뉴스를 CNN에서 찾아야 하는 건데 보통은 2분 50초나 3분 20초 이런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가끔가다 4분짜리 리포트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5분짜리 기사 자체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 기자 리포트가 있는 기사를 2개를 붙이거나, 아니면 아주 긴 4분짜리 <리포트>에 1분 미만의 <단신>을 붙여서 5분짜리를 만드는 거죠.”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 “시의성, 흥미를 다 고려하다 보면 그 조합이 5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 기사의 일부를 잘라내야 해요, 자르는 일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자르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지침도 선배한테 받은 건데요, 중간에 기자가 리포팅을 하는 부분보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등 기자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파트는 소위 전문용어로 ‘인서트(insert)’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서트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잘라내요. 그래서 편집기계를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그 당시 가정용 VHS 비슷한 건데 방송 ‘베타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CNN 외신 모니터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CNN, BBC에서 방송되는 모든 뉴스를 다 녹화를 해요. 그 중에서 기사를 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통역실의 우리들이 그걸 가져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 후에 베타 테이프에다가 내가 제작할 테이프를, 그러니까 영어 원본에 대한 편집부터 저희가 하는 거예요. 번역, 통역보다 편집 일이 훨씬 힘들었어요. 기계 조작 자체가 낯설고, 처음에는 테이프로 했다가 나중에는 디지털 파일로 편집을 해야 했어요. 자르고 붙이는 정도만 한 거기는 했는데 그런 걸 익히는 게 쉽지는 않았죠.”

더빙용 번역에 있어서는 발화 길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했다. 원문을 눈으로 보며 최대한 축약해서 번역을 해도, 이후 실제적인 더빙 작업에 돌입하면 여전히 길어 재작업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십상이었다. 또한 선정한 기사에 대한 영어 원문 스크립트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민선은 더빙용 번역을 동시통역을 하듯 귀로 들으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표현적인 차원에서 번역의 기준이 된 것은 생방송 뉴스 동시통역과 비등하게 핵심 줄거리 중심의 축약과 한국어의 자연스러움과 가해성이었다.

> “일반 문서 번역에서는 번역문의 길이가 원문과 대비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주로 들으면서 번역을 해야 됐던 게, 더빙을 하려면 번역본이 원문과의 길이 차이가 나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 원문의 길이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처음에 할 때부터 길이를 감안해서 번역을 하려면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은거죠.”

“방송용이기 때문에 우리말 아웃풋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 했죠. 최대한 자연스러운 한국말이 나와야 돼요, 번역투나 번역의 냄새가 거의 안 나게요. 굳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살리지 않아도 되고, 메시지 중심, 시청자가 들었을 때 잘 이해가 갈 수 있는 번역이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었기 때문에 더빙용 원고 작성에는 클로징 멘트 등 번역 외적인 요소들도 가미되어야 했고, 방송기사 특유의 표현 형식들이 반영되어야 했다. 또한 사전에 제작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더빙으로 목소리를 입힐 때에 전문 방송인과 같은 목소리, 어조, 억양을 구사하는 것은 민선이 생방송 뉴스 동시통역 때보다도 더 완성도 있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었다. 초반의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기초 교육은 통번역사 선배들이 간단히 챙겨주었지만, 민선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검수해주는 방송국 관계자가 없는 관계로 민선은 더빙 기사를 작성하고 낭독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실상 홀로 터득해야 했다.

“제 목소리로 번역한 내용을 기자처럼 녹음을 해서 제작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듯이 하면 안 되고 기자들이 말하는 거처럼 저도 생동감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앵커, 기자들의 말을 쉐도잉도 많이 하고 기사를 계속 읽는 연습을 혼자 하는 거죠. 아나운서 아카데미 같은 데 가면 알려줄텐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못 받고 혼자서 연습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했어요.”

“저는 지방 출신이라서 사투리나 어조가 읽을 때 살짝 나올 때가 있고, 동시를 할 때에도 흥분을 하면 사투리 억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처럼 읽고, 억양을 고치고, 단어의 장단음 바르게 발음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기사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됐던 거는, ‘～하여’, ‘～하였습니다’는 방송에서는 안 써요. ‘～하였습니다’ 대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약형으로 하라고 했어요. 위하여도 ‘위해’로 하고요. 그리고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 ‘～입니다’가 붙을 때, 가령 ‘조윤희입니다’가 될 때 ‘조윤힙니다’로 하도록 지침을 받았어요.”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 "그래서 마지막에 클로징을 할 때 형식 상 프로그램 이름 말하고 나서 번역자의 이름을 '~입니다'라고 하는 멘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CNN 원래 기자 이름들이 있잖아요, 앵커가 기자랑 연결할 때 미국기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번역할 때 지침 상 아예 안 넣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자세한 기자 보도입니다' 정도로 처리해요. 앵커이름, 기자이름은 저희 콘텐츠에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서요."

프로그램 제작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민선은 컨텐츠를 방송국 페이지 게재용으로 재번역을 했다. 방송국이 홈페이지에서만큼은 기사의 원본과 완역본을 올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번역문에 대한 주석을 다는 것까지 업무에 포함되었는데, 홈페이지 방문자를 위해 영어 원문의 난해한 단어나 중요한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다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민선이 프로그램 제작용으로 선정한 영문 뉴스 기사들은 원문이 검색이 안 될 때도 빈번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민선이 영어를 들으면서 전사 작업을 통해 원본을 생성하는 작업까지 맡았다. 또한 해당 방송국에서 근무한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더빙보다는 자막이 시류에 맞다는 방송국 측의 판단에 따라 민선은 자막번역으로 업무가 전환되었다. 이때 역시, 민선의 번역은 자막용과 홈페이지 게재용으로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 "자막 번역을 할 때는 더빙이랑 다른 게 뭐였냐면, 글자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방송국 부장님이나 기자들이 검수를 해줬어요.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봤을 때 좀 더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다른 표현으로 고쳐주기로 하고요. 더빙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데스크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에서 보듯,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뉴스 제작을 하게 되면서 민선의 업무범위는 크게 확장되었다. 일반적인 통번역사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훨씬 넘어선 제작과 관련된 실제적인 기술과 번역 및 더빙의 기법을 터득해가면서 민선은 전보다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방송의 생리를 익혀갔다.

4. 통번역사 역할의 세분화

프로그램 제작 외적으로 민선은 CNN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을 다루는 속보 및 특보(특별보도)가 나올 때 이에 대한 생방송 동시통역을 맡았다. 생방송 뉴스 동시통역은 첫 프로젝트에서 익히 경험해본 상황이었지만, 사태가 조속히 완결되는 단발성 속보 외에도 장기화 및 이슈화가 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국은 특보라는 제목 하에 생중계로 방송을 했다. 다행히 그 특성 상, 세부적인 내용을 많은 정보를 실어 담을 수 없는 것이 속보였지만 속보는 예고 없이 터졌고, 24시간 뉴스 방송의 특성 상 통역 역시 예기치 못한 상황과 시간에 발생했다.

> "실제로 속보가 발생하는 경우에 생방송 동시통역을 하는 거예요, 북한 관련해서 주요 사건이 터졌는데 그 내용을 CNN에서 중계한다거나 할 때요. 그러니까 'breaking news'라고 해서 정규 뉴스 중간에 속보가 나오는 경우, 그 속보가 우리나라 관련일 때요. 북한 관련 내용이라든가요. 밤에도 관련 속보가 나올 수 있어서 야간(새벽 2시까지)에 교대근무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불려가기도 하고요."

> "속보의 경우에는 취재하는 기자들조차도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가령 인질극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인질이 대략 몇 명이다 정도이고, 납치자가 누구인지도 불확실한 경우도 많고요. "내부 상황을 알 수 없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앵커가 기자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밝혀졌습니까?"하면 "아직이다. ~로 추정된다" 정도의 답이 나오거든요. 정보 자체가 많지 않아서 어렵지가 않아요."

스튜디오 데스크에 앉아 여러 개의 화면을 앞에 두고 통역을 하는 생방송 및 생중계 상황에서 통역사와 실무자들과의 원활한 협업이 요구되었다. 하나의 생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방송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소위 'PD 콜'을 통해 출연자 전원에 대해 때마다 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PD콜은 출연자들의 한쪽 귀에 꽂힌 이니어(in-ear) 장비를 통해 전달이 되었는데, 방송 엔지니어 등의 실무자들과 통역사들 간에 이니어를 두고 이따금씩 실랑이가 벌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졌다. 이니어를 통해 프로그램 전체의 진행 실황에 대한 정보가 접수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했지만, 온전히 통역에 집중하기 위해 이니어를 꽂을 수가 없는 통역사의 사정에 대해 실무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었다.

> "통역사들도 앵커처럼 스튜디오의 데스크에 앉아서 일해요. 방송되는 앵커 스튜디오인 1번 아닌, 2번, 3번 스튜디오를 별도로 줘서 통역사들은 거기 앉아요. 통역사들 앞에 화면이 총 3개가 있는데, CNN이 들어오는 화면, 앵커들이 있는 메인 스튜디오를 보여주는 화면, 실제 방송에 나가는 화면이예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시청자가 보는 화면에 자료화면이 띄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PD도 통역사 스튜디오의 모습을 또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어요."

> "생방송 장비를 셋팅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 기사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통역사들한테 마이크도 채워주고 피디콜을 위해서 이니어를 꼭 꽂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생방송을 했을 때 통역사 선배들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통역을 생방송으로 들어갈 때는 피디콜 없이 한다고 꼭 말을 해라, 그리고 화면에 통역해야 할 화자가 나오거나 영어가 들리면 그러면 무조건 통역을 시작하라. 피디콜이란 건 PD가 방송 관련자들에게 지시하는 모든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이니어에서. 그러니까 통역 도중에 다른 앵커한테 지시하는 말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 "실무자들은 저희한테 피디콜을 왜 빼느냐고 하고, 매번 설명을 해야 돼죠. 방송국에서는 모든 출연자들이 이니어를 꽂아야 돼서 통역사들한테도 으레 이니어를 주고, 저는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통역사들이 피디콜을 받다가는 사고가 나거나 당황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선배들이 예전에 겪고 받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한편 속보, 특보와는 별도로 민선이 24시간 뉴스채널에서 생방송 동시통역을 맡은 것은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생중계였다. 특별히 국내 방송사에서는 미국이 발표하는 대외정책과 대북입장에 초미의 관심을 두므로 연두교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두교서는 한국 관련뿐 아니라 실로 방대한 주제를 다루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기에 다른 어떤 방송 통역보다 부담이 되고 철저한 통역준비를 요했다. 이를 위해 이전의 연두교서 원고를 보면서 미국의 정책, 법안을 비롯한 주요 사안들의 틀을 잡아야 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연설원고를 보면서 연두교서를 발표했지만, 백악관의 원고 공개금지 원칙에 따라 민선에게는 연두교서 중계 직전에 원고가 전달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 “연두교서 통역을 준비할 때는, 미국의 정책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보건분야, 대외정책, 이민정책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 가운데서 주로 어떤 내용을 언급하는지 하는 전체적인 틀을 우선 보는 거죠. 또 최근에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미리 숙지했고요.”

> “그런데 연두교서 원고가 동시하기 5분 전에 나와요, ‘embargo’라고 하는데 방송 몇 시 이전에는 스크립트가 공개나 보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치가 있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텍스트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분산이 돼서요. 미리 어떻게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 경우에는 텍스트를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30분 전에라도 주면 단어라도 체크를 하고 볼텐데 직전에 받으니까요. 결국 그냥 귀로 듣고 통역하고, 오히려 텍스트가 방해가 되고 있으나마나 했죠.”

> “통역이 어려운 걸로 치면 연두교서가 제일 어려워요. 생소한 내용도 많고, 미국 정책이랑 법안 관련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법안명칭, 정책명칭 등 이런 식의 고유명사들이 어려웠어요. 중간중간에 미국이 진행하는 캠페인이나 프로그램 언급도 많이 하더라고요. ‘Childcare’ 관련해서 새롭게 무슨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미국적인 법안 이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두교서 행사가 시작되면 방송 통역사로서 단순히 연설의 통역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중계 멘트를 통역하는 것까지가 민선의 몫이었다. 입장하는 인물과 호명되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과 안내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처음 듣는 초청 민간인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의 정확한 이름과 정체 파악이 힘들 때는 순발력 있게 통역에서 우회 전략을 구사하기도 해야 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연설만 통역하는 게 아니고 연설하기 전에 의원들이 입장해서 박수를 받고 악수하고 연단에 오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안내하는 말들부터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매해 국정연설마다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설장에 의원들 외에도 초청받은 민간인과 상이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원의장한테 인사한 후에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름이 고유명사로 나오는 거죠. 한국어에서는 수식이 먼저 나온 후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반대잖아요. 특정 인물 이름이 툭 던져졌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게 변수로 작용을 해요."

"일단 연두교서 상황에서 사람 이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름은 간혹 못 잡으면 "시민 일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민 일원께서 특별 손님으로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처리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상의 24시간 뉴스채널 인하우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시통역은 통역사 1인이 홀로 진행해야 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통번역팀의 주요 업무에 따라 동시통역의 수요가 발생을 하여도 누군가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계속 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국정연설의 경우 긴 길이의 난해한 내용을 파트너 없이 통역을 하는 것은 민선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통역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고 부드러운 이음새와 유창성이 중시되는 방송 통역의 특성 상 뉴스를 통역하는 상황에서는 홀로 하는 동시통역의 장점도 없지는 않았다.

"다행히 뉴스 동시통역은 꼭지 길이가 아주 길지는 않았어요. 5분 정도 통역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연결해서 5분 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인 동시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정연설은 그 긴 거를 혼자 해야 되니 꽤 부담이 되죠. 국정연설에서는 그마나 청중이 중간 중간에 박수를 치니까 그때 아주 잠깐 쉴 수 있긴 해요."

"솔직히 2인 동시를 했다면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명이 같이 하면 역할을 나눠야 되잖아요. 일반 국제회의라면 시간이나 연사 별로 나눌 수가 있을텐데, 방송 통역에서는 그게 애매한 거예요. 길이를 잘못 끊

었다가는 파트너 통역사의 말이 씹히거나 제가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인하우스 생활에서 민선은 통역사로서 더욱 세분화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짧은 호흡의 속보와 특보에 대한 생방송 통역을 민선은 순발력 있게 감당해야 했고, 연중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긴 호흡의 통역을 원활히 수행해야 했다.

Ⅴ. 민선의 내러티브 ‘다시 이야기하기’ 및 결론

민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이라는 분야는 통번역의 특수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의통역의 상황과는 상이한 업무의 맥락에서, 민선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방송 통번역의 생리를 점차 익혀갔다.

민선이 처음 몸담은 외신뉴스 동시통역 프로젝트는 9.11 테러 사태를 전후로 하여 CNN 뉴스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활성화된 시범방송이었다. 국내될 일반 뉴스는 보도국이 데스크를 보고 일종의 검열을 거쳐 나가는 반면, 외국의 방송 컨텐츠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방영하는 ‘재전송’ 컨텐츠 가운데에서도 특히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외신 뉴스에 대하여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식 허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선이 합류한 프로젝트 역시 얼마간의 시범방송에 그쳤지만, 한국 시청자를 위한 정기적인 외신뉴스 동시통역 서비스로는 지금까지도 유일했던 방송으로 그 1세대 통역사로서 민선은 뉴스 생방송 동시통역사로서 특별한 경력을 쌓게 된다.

외신뉴스 생방송 동시통역사로서의 삶에 대한 민선의 이야기를 통해 방송 통역 고유의 특성과 상황 변수들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선은 사회 초년생이자 방송 통역의 첫 세대 통역사로서 기본적인 업무 지침 정도에만 의존하여 상당 부분의 업무와 전문성을 독자적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했다. 일반 회의통역의 상황 및 원칙과는 상당 부분 상이한 방송만의 통역 전략과 생방송의 맥락 속에서 민선은 홀로 업무를 터득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생방송’과 ‘동시 통역’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민선의 통역 수행의 핵심 기준이 된 것은 “방송인처럼 말하라”는 고용주 및 시청자의 요구였다. 이는 민선에게 상당한 사전준비와 통역 전략적인 대비를 요하였다. 대학원에서 내용의 정확성과 높은 커버리지를 중심으로 통역을 연습해 온 민선에게 유창성과 목소리라는 방송 통역의 새로운 잣대는 상당한 적응을 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방송인처럼 말한다는 것은 또한 시청자가 듣기 좋은 적정 속도의 발화를 뜻하였다. 이에 따라 통역에서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핵심 내용만을 전달하는 고도의 분별력과 요약 능력을 함양해야 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는 정보량과 가해성 확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어져, 방송 통역사인 민선에게는 딜레마 상황이 펼쳐졌다. 핵심 줄거리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요약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정보의 삭제와 재구성을 실시간으로 이어가는 능력을 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속도와 듣기 좋고 방송다운 발음과 어조로 말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민선의 별도의 전문 훈련 없이 스스로 터득하고 감당해 나갔다. 또한 백트래킹, 잡음, 파트너와의 대화 그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 생방송 환경에서 한 번에 언어적인 완성도를 완벽에 가깝게 가져가야 하는 생방송 환경에서 민선의 고도의 집중력과 자기훈련을 유지해야 했다.

24시간 뉴스 채널의 인하우스 통역사 생활 중에 민선은 상당한 역할의 다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민선의 업무영역을 확장시킨 것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로, 실제적인 컨텐츠 선정과 편집 및 더빙 일체의 과정을 담당해던 민선은 이때의 경험을 “통번역사의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의 역할 기대였다고 회고한다. 기계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능력까지 요구되었던 프로덕션 업무는 민선의 동료 통번연사들을 정체성 위기에 따른 퇴사 결정으로 몰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류에 민감한 방송이라는 영역의 특성 상, 통번역사의 역할의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만다 민선은 즉각적으로 자신을 새로운 업무에 적응시키고 각 업무에 따른 부대적인 통번역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어나가야 했다.

수행한 방송 통번역은 전적으로 한국의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였기에, 민선의 경력 역시 전적으로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언어방향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전문적인 방송화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사내에서도 방송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던 민선은 스스로 한국 전문 방송인 ‘모방하기’와 ‘닮아가기’를 통해 방송 상황을 헤쳐 나갔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민선 스스로 언급했듯, 방송 통번역사의 정체성이란 단순히 통번역에 치우칠 수 없으며 오히려 방송의 특성들에 더 초점을 둔 통번역의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다. “방송은 통역, 번역, 편집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hybird) 통번역 인력”을 필요로 하며, 해당 인력의 자질로는 “유연성, 빠른 업무속도, 방대한 상식, 신규 장비에 대한 낮은 거부감”을 들 수 있다(쿠르츠, 1990: 173). 실제로 편집을 비롯한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통역 시에 상황 중계까지 하는 등, 방송 통번역사로서 민선의 역할 역시 방송인과 통번역사의 경계에 있었다 하겠다.

지금까지 통번역학계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한 연구는 일반인과 청각 장애인 간의 소통을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video relay service, VRS)를 통해 이어주는 VRS 통역사의 경험을 다룬 피터슨(Peterson, 2011)과 현직 인하우스 번역사의 경험을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조명한 홍설영(2018) 정도에 머물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내러티브 탐구 연구가 탄생하여 통번역사들의 실무와 경험의 실체가 조명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본고를 통해 방송 통번역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고 방송 통번역사 교육의 중요한 함의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수정. (2013). 「방송뉴스 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7(1), 1-26.

곽중철. (2003). 「해외위성보도프로그램 동시통역 훈련방법 연구」. 『통번역학연구』, 7(1), 1-39.

곽중철. (2008). 「한국의 TV통역사훈련 통번역학연구」. 『통번역학연구』, 11(2), 1-19.

김보애. (2013). 「방송통역의 충실성과 퍼포먼스가 수용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인문언어』, 15(3), 239-260.

김은영. (2013). 「방송사 통·번역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58, 45-55.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김은영. (2014).「일본 방송사의 통·번역 시스템 현황」.『일본어문어집』, 18, 5-17.

김필성. (2015)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경북: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한식. (2012).「방송통역의 충실성과 이해용이성」.『일본학보』, 90, 14-24.

김한식. (2013).「방송 번역의 화계 분석 : 일본 보도프로의 ‘직접발화’를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 17(4), 35-50.

박민정. (2006).「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아시아교육연구』, 7(4), 27-57.

송연석. (2019).「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 :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 23(2), 117-137.

이지연. (2007).「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 8(1), 263-282.

이창수. (2004).「번역에서의 정보구조 변화: 방송뉴스 번역을 중심으로」.『통역과 번역』, 6(1), 137-153.

이태형. (2000).「아카데미상 시상식 텔레비전 생방송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 연구」,『통역과 번역』, 2, 85-110.

이태형. (2015).「국제부 기자의 TV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통역과 번역』, 17(3), 139-162.

이태형. (2014).「비문가에 의한 스튜디오 생방송 동시통역」.『통역과 번역』, 16(3), 147-167.

정나영. (2013).「TV 뉴스 번역에서의 삭제 양상 분석」.『번역학연구』, 14(1), 301-329.

정나영. (2017).「TV 뉴스 영한 번역 전략 연구 – 영상 기호와 언어 기호의 연관성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 18(5), 199-230.

조영주. (2008).「방송 통역에 관한 고찰」.『일본어문학』, 39, 145-168.

최경인. (2013).「라디오 방송 텍스트의 번역 양상 분석」.『통번역학연구』, 17(4), 217-242.

최수나. (2005).「방송통역연구에 대한 소고」.『통번역교육연구』, 3(2), 87-104.

한현희. (2016).「구어와 수어 릴레이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 연구」.『통번역

학연구』, 20(4), 189-222.

Cho, S. (2014). Basic concepts in the theory of audiovisual translation. *Journal of British and America Studies. 31*, 377-396.

Clandinin, D. J., & Rosiek, J. (2007). Mapping a landscape of narrative inquiry: Borderland spaces and tensions. In D. J.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pp. 35 - 75). Thousand Oaks, CA: Sage.

Clandinin, D.J. & Murphy, M.S. (2007). Looking ahead: Conversations with Elliot Mishler, Don Polkinghorne, and Amia Lieblich. In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pp. 632-650). Thousand Oaks, CA: Sage.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Sage.

Gottlieb, H. (2005). Multidimensional Translation: Semantics turned Semiotics MuTra 2005 - Challenges of Multidimensional Translation. Conference Proceedings. Retrieved May, 2014 from http:..euroconferences.info/proceedings/2005_Proceedings/2005_Gotlieb_Henrik.pdf.

Etherington K. (2004). *Becoming a Reflexive Researcher*. London: Jessica Kingsley.

Katan, D. & Straniero-Sergio, F. (2001). Look who's talking: The ethics of entertainment and talkshow interpreting. *The Translator, 7*(2), 213-237.

Patton, M. Q. (1985). Quality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cal Principles and Recent Developments. Invited address to Division J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Straniero-Sergio, F. (2003). Norms and quality in media interpreting: The case of Formula One press-conference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2*, 135-174.

Clandinin, J. D. & Connelly, M. F.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Connelly, F. M. & Cla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Connelly, F. M. & Cladinin, D. J. (2006). Narrative inquiry. In J. Green, & G. Camili & P. Elnore (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 Research(3rd ed.)* (pp. 477-487). Mahwah, NJ: Lawrence Erlbaum.

Kurz, I. (1990).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in European television. In D. Bowen & M. Bowen (Eds.), *Interpre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p. 168-175). Binghampton. NY: SUNY,.

Kurz, I. (1996). Special features of media interpreting as seen by interpreters and users . In New Horizons. *Proceedings of the XIVth World Congress of FIT* (pp. 957 - 965). Melbourne : AUSIT .

Peterson, R. (2011). Profession in pentimento: A narrative inquiry into interpreting in video settings. In B. Nicodemus & L. Swabey (Eds.), *Advances in Interpreting Research: Inquiry in Action* (pp. 199-224).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Pöchhacker, F. (2011). Researching TV interpreting: Selected studies of US presidential material.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6*, 21-36.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

이름: 홍설영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겸임교수
우편번호/주소: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관 208호
전화: 010-9113-2165
이메일: harahong@daum.net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9년 7월 12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04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16 PM